

마데테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교회를 나의 자존심으로 삼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존심조차
악으로 규정하며 스스로를
비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교회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형통과 축복을
바라보지 않으며 오로지
불쌍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만
모이기를 힘씁니다.

바다 앞에 서보면

신윤식

바다 앞에 서보면
한 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보게 된다.

교만도 분노도 번민도
욕망도 사랑도 그리움도
저 큰 바다의 위력에
가차 없이 묻히고야 마는

손에 쥐어 지르는 환호성도
파도에 흩어지고
메아리 되어 울렁이는
가슴으로만 남으니
생존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과분하여
고개 떨구는 까닭을
누가 과연 아시리오

바다 앞에 서보고도 모른다면
파도소릴 보듬고
바다 넓은 저 끝으로
바다 깊은 저 속으로
마음 끌고 가보라 말할 뿐

모든 것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작은 존재로 돌아오는
나를 볼 수 있으리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3.8.25

발행호수 제21권 34호

또 다시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안식일 문제가 불거집니다. 13장을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허리 굽은 여인을 고쳐주신 일로 인해 회당의 분노를 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일을 비난하는 무리들을 향해 ‘너희는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끌고 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시면서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안식일에 병 고치신 일로 인해 바리새인과 충돌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도무지 예수님과 대화가 되지 않고 예수님과 전혀 다른 길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늘나라에 계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역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이며,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한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안식일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안식일을 가지고 안식일 주인이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분노합니다. 가짜가 진짜를 향해서 ‘너는 가짜’라고 소리치는 형국입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참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이 아닌 자기의 틀에 갇혀 있는 자들으로써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순수하게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에 의한 것이라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

주일오전설교
눅 14:1-11

높은 자리
낮은 자리

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문제는 안식일을 포함한 유대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신앙의 권위를 누리고자 한 것입니다.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 봐’ 이런 식으로 규례 지키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 세계에서 윗자리에 앉을 자격과 권위가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점을 생각하면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비유의 말씀이 안식일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가 그에게 어떻게 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나 아니하냐**”라고 답하십니다. 여기서 답하셨다는 것은 실제 그들의 어떤 질문에 답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엿보는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답을 하지 못하고 잠잠하자 예수님은 수종병자를 고쳐 보내신 후에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 내지 않겠느냐**”(5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답을 못합니다. 답을 못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타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 잘못 생각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생각을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바꿀 의도가 없었기에 단지 잠잠히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왜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 등의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의 신앙 정당성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규례를 성실히 잘 지킨다는 것으로 신앙의 권위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고, 또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안식일 규례로 인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충돌은 단순히 안식일에 병을 고쳐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본질의 차이로 인한 충돌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으로 있을 때 안식일, 즉 주일 성수에 대해 배운 것은 주일에는 돈을 쓰지 말고, 음식을 사먹지 말아야 하고, TV를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먼 사람도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와야

했고 도저히 걸을 수 없는 거리에 있는 사람은 미리 토요일에 와서 예배당에서 잠을 잤습니다.

돌아갈 때도 월요일에 가야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일 성수가 부담이 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토요일에 와서 월요일에 돌아가는 식의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은 늘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어야 했고,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신앙 좋다는 칭찬을 보상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만약 예수님이 차를 타시고 예배당에 오셨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차를 타신 것을 보니 주일에 차를 타고 타지 않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동안의 자신의 공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분노가 앞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든 그동안 자신이 지켜왔던 것을 진리로 고집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율법교사고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자신을 하나님의 공홀이 필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공홀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고 복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규례를 성실히 지키는 성의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존재로 여긴 것입니다.

이들에게 수종병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가 겪는 고통 역시 관심 밖입니다. 그의 고통 보다는 자신이 지키고 있는 규례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통 받는 수종병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권위가 있고 높은 자로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청함을 받았을 때 앉을 자리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는 늘 서열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열은 사회적인 위치나 권위, 연배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열 순서는 단순히 높고 낮은 자리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애를 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질과 대립하여 등장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처럼 신앙이 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과 충돌되다 보니 신앙의 요구를 모른 척 하든지 아니면 위선적인 겉

손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자신을 낮추고 살아가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면 사회적 신분이 높다고 해서 상석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는 겸손을 보일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에게 인격이 훌륭한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한 처세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단지 바른 삶을 위한 행동 지침의 하나일 뿐입니다. 결국 이러한 겸손을 내세워 자신의 잘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라고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이들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청함을 받은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나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 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8,9절)고 말씀합니다.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보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혼인 잔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종병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으로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수종병은 몸에 물이 생겨 붓는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사람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있었다는 것은 정식으로 초청된 것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단지 식사 자리였다면 수종병자가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할까요? 혼인 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닌란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돋보이고자 하고 영광을 받고자 한다면 그는 신랑 신부의 영광을 가리는 하객일 뿐입니다. 혼인 잔치보다는 자기 영광에 마음을 둔 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말씀은 혼인잔치에서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잔치 그 자체이고 신랑 신부이지

너 자신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 씀은 어떤 모임에서 사회적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석에 앉기를 거부하는 겸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마음을 두는 것이 옳은 것이지 영광을 누릴 자신에게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영광을 누릴 자신에게 마음을 두기 때문에 결국 제자들처럼 높은 자리에 대한 다툼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칭함을 받은 경우에 칭한 자가 와서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 주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혼인 잔치에서의 자리는 잔치 주인이 정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바리새인이 스스로를 높은 자로 여기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이 자기 기준으로 스스로를 높다고 여기는 그것이 부끄러움과 함께 끝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영광을 위해 안식일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수종병 자처럼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 다. 다만 예수님을 자신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로 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권력이고 돈입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세계에서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가장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여기에 관심을 두면 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에 모든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인 잔치에 칭함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야 할 자세입니다.

사람은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조차 자기 인격과 신앙을 보여주고자 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이

인격이 훌륭하고 신앙적인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을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본성이 십자가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알고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살았고 접했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으로 부름 받았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신의 영광은 전혀 관심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의 영광의 세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관심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영광,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 마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늘 자기 영광을 세우려고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께에만 마음을 두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기뻐하며,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어도 감사하게 되는 그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높은 자로 여김 받을 것입니다.

본 문은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도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 1:2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한 것처럼 본문 1,2절에서 헛되다는 말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헛되다는 말은 자칫 잘못 이해하면 ‘허무주의’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어차피 인생은 헛될 뿐인데 열심히 살려고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으로 흐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한 것은 좀 더 깊은 신앙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세상의 근원을 알고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

주일오후설교
시 127:1-5

헛된 수고

(131강 7.28일 설교)

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의 수고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구조 자체가 자기의 수고가 없이는 먹고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합니다. 즉 집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우는 자의 수고가 아니라 여호와가 집을 세우시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가 집을 세우시면 다 되니까 너희는 굳이 집을 세우려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세우는 자의 수고를 말하면서도 여호와가 세우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가 아무리 수고를 한다고 해도 집이 세워질 수 없다는 뜻일까요? 이점을 이해하기가 조금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집을 우리의 육신이 거처하는 집으로 생각한다면 여호와와 상관없이 우리의 수고로 집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가 집을 세우고자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 육신을 편히 쉬게 하는 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집은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는 육신을 편히 쉬게 하는 공간이 되고 장소가 됩니다. 하지만 집을 안식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이라는 것은 육신을 편히 쉬게 할 수 있는 공간은 될지 몰라도 영혼의 안식처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집을 지었다고 해서 영혼이 편히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과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은 늘 흔들리고 무거운 집으로 인해 괴로워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을 안식처로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한다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는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은 적의 공격을 감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파수꾼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는 수고를 한다고 해서 성을 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을 지키는 것은 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파수꾼이 깨어 있다고 해도 힘이 없으면 깨어있음도 헛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파수꾼이 깨어 있는 수고가 힘이 아니라 여호와가 진정한 힘이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수고할 때 많은 것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수고의 이유를 자신의 힘으로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고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을 때 세상을 탓하며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삶의 방식이 헛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잘살든 못살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잘살든 못살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잘살고 못사는 것이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에 의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인생도 멸망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의 인생은 모두가 헛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열심히 수고하며 살지만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고 말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수고를 한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목적 역시 자기 성공입니다. 교회에서도 소위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주일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신앙 좋다는 칭찬을 듣습니다. 자기 신앙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 신앙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을 헛되다고 합니다. 이유는 나의 수고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수고하든 수고하지 않든 어차피 죄인이라면 수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반발이 있다면 그것은 수고로 인한 보상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면 수고로 인한 보상에 마

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수고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마음을 둘 것입니다.

수고를 했을 때 수고로 인한 떡이 주어집니다. 사람은 모두 수고의 떡을 먹으며 살지만 생각해 보면 수고의 떡으로 인해 배부름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어진 수고의 떡에 대해 늘 불만입니다.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아지면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많아져도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만 속에 살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잠을 많이 푹 자게 해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배부름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인생을 알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이며 복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다는 것은 수고의 떡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이 되심을 아는 믿음 위에 세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보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헛되다는 말 뒤에 자식에 대해 언급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을 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는 내용을 보면 마치 자식이 있어야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4,5절을 봐도 많은 자식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식은 우리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낳아진 자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 낳아진 하나님의 자녀가 여호와와 기업을 이고 상급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신자는 그 자신이 여호와와 기업을 이고 상급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존재 가치를 모르고 인생에 목적을 두고 살기 때문에 수고에 대한 다른 상급,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처럼 수고의 목적을 인생에 두지 않습니다. 인생에 목적을 두고 수고하게 되면 늘 보상에 마음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고 적음에 민감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이미 복된 자로 존재하고 그 인생 또한 영광에 붙들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도 열심히 수고하며 살지만 수고의 떡으로 더 나은 인생을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헛됨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거로 한 삶이야말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88장 7.24일 설교)

시 드기야는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여호야김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킨인데, 이 사람을 1절에서는 고니야로 말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 와서 고니야를 폐위시키고 고니야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위에 앉힌 것입니다. 이처럼 왕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폐위되고 세워졌다는 것은 유다가 국가로서의 모든 주권을 잃어버린,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멸망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따라서 유다는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죄를 회개하며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여전히 자기중심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2절에서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고 말하는데, 이것만 봐도 유다는 멸망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했던 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뭔가 희망을 두고 있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헛된 희망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이겠습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한 것을 보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여겼음을 알 수 있는데,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여겼다면 그가 외친 말을 생각하면 유다가 그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직시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 안에서 유다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됨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다에게서 끌어내고자 하시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에게는 말씀의 성취라는 것보다 유다의 장래가 더 걱정입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는 유다를 다른 세계로 끌어 들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친송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잘되고 못되는 것은 애당초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에서 벗어나 다시 번창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자기 개인의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유다를 멸망으로 끌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무지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드기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의 문제이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시한 채 자신의 사정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라는 마귀의 사상에 교화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믿으며 열심히 기도합니다. 오로지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열망 하나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예레미야가 찾아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참된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시드기야처럼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7,8절)**

유다를 돕기 위해 왔던 애굽을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바벨론이 오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불사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사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의 부탁대로 기도한다고 해도 결국 말씀대로 성취되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뜻과 계획대로 모든 일을 성취하심을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과 열정에 따라 응답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신자가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가 기도하거나 신앙이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잘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드기야와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인간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믿음은 자기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위해

서 인간은 죽어 마땅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으로 밀어 넣는 것도 유다로 하여금 믿음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대신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일 뿐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나의 믿음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식으로 자신에게 근거를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근거를 두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에만 마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바벨론이 애굽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멸망을 외친 예레미야의 말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으로 떠나고 베냐민의 문에 이르렀을 때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아 고관들에게 끌려가고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들은 바벨론이 물러가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을 쳐 바벨론에 항복하려고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은 우리 개인 사정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일이 잘되는 것을 내세우며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자신의 일이 잘되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시는 증거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일을 두우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이 현실을 근거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입니다.

현재의 잘됨과 못됨을 믿음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지만 현재의 잘됨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깨닫고 황폐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현실에 속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으로 인해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굳건하고 변함없는 뜻에 의해서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들의 주장 또한 성경과 전혀 다르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로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부터 영으로써 존재했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고 말한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시기를 그들은 전세라고 부르고, 이미 영으로 존재하는 인간이 세상에 오면서 육체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